

# 전남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활약 '눈에 띄네'

## 동절기 집중지원 복지취약 1만1천449가구 혜택 난방 물품 후원·생필품 등 민간 자원 지원도 증가

기름값이 부담돼 전기판넬 만으로 겨울을 나던 할아버지, 강풍과 폭설로 양철 지붕이 내려앉고 무너진 벽 사이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버티던 홀로사는 어르신 등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다.

까맣게 늘어붙은 장판을 안전한 내열 장판으로 교체해주거나, 무너진 지붕과 벽을 다시 만들고 난방시설을 수리하거나 후원으로 들어온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소외 계층의 '수호천사' 역할을 자청하는 복지공동체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마음으로 전남 지역 모든 읍·면·동에 구성된 활동하는 민·관 협력 자원봉사 조직이다.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안정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의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썼다. 이번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

약계층 1만1천449가구가 도움을 받았으며 총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독거노인 가구가 6천537가구로 가장 큰 비율(57.1%)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가구(1천330가구·11.6%), 노인부부 가구(850가구·7.4%), 한부모 가구(629가구·5.5%), 다문화 가구(322가구·2.8%) 순이었다. 이번 동절기 집중 지원에선 제도권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위기가구도 1천786가구(15.6%)를 발굴해 지원했다.

특히 8천200가구의 겨울철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점검 등 맞춤형·선제적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중 지원에선 또 민간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난방유 및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 등도 대폭 늘거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하면 총 23억5천여만원 상당이 지원돼 겨울철 취약가구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

난 겨울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 앞서서 봉사한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있어 모두가 따뜻하고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봄철에도 복지공동체가 이웃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공동체의 도움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를 120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 안심보험·메세나 등 광주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 자생력 키운다

## 市, 행정업무대행·상담실 'ON:결에' 등 서비스 예술기획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 확대 컨설팅

광주시가 장벽 없는 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계 자생력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2024년 광주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전년보다 485명 늘어난 4천313명(2023년 12월 말 기준)이다. 신진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142명 늘어난 506명이다. 광주시는 먼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술인 전용 상담 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1층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 전담 상담 인력 2명을 배치해 예

술 활동 증명 등록, 예술 활동 준비금 지원 신청 등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대행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예술상담실 ON:결에'를 확대 운영한다. 예술기획, 공연, 전시, 창작 및 단체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술인 신문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 상담과 함께 신고 접수도 지원한다. 다변화하는 예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 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예술인 권리 보호, 창업, 진로, 창작



22대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여 앞둔 25일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6일까지며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 29일 최종 확정된다.

이 밖에 예술 활동 중 장애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광주예술로

(路)',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메세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박선강기자

## '전남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상품 개발 등 1천만원 지원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년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로컬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음식, 기념품, 주민로컬여행, 특화체험여행 등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18개 지역 88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했고 656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모집 대상은 목포·여수·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강진 등 10개 지역에서 관광 관련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다.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자하고 협동조합 형태 등의 구성원이 창업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선정 규모는 10개 안팎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창업·경영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맞춤형 실무교육, 신규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주민사업체의 성장과 자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받는다. 신청 접수는 4월19일까지며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성장 가능성, 사업 경영 개선 실적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사업과 자금을 지원받는다. /김재정기자

# 식육·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 광주시, 29일부터 판매 업체 20곳 대상

광주시는 25일 "오는 29일부터 4월26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위

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한우·비한우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거나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근중 사회재난과장은 "시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